

de leurs morts : Calvin a exigé ici une sobriété radicale et presque inhumaine. Certes il était cohérent avec son *Traité des reliques* où il se moquait de la dévotion et du culte des morts. Mais il avait été trop loin dans le démantèlement des traditions, et l'ampleur des effets peut nous faire oublier qu'il ne cherchait pour sa part qu'à restaurer, qu'à restituer ce qui lui semblait être un point de départ. Un point de départ accessible à tous.

Olivier ABEL  
 Professeur de philosophie  
 Faculté de théologie protestante de Paris  
 o.abel@free.fr

## 종교개혁자 츠빙글리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 「67개 조항에 대한 해설과 논증」을 중심으로

권선중 /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신학 전공 논문학기

### 1. 서론

높은 산맥과 넓은 호수들로 이루어진 스위스는 서유럽의 작은 나라이다. 알프스와 초콜릿의 나라, 가장 여행하고 싶은 나라,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소득과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통화를 사용하는 나라 등 현재 스위스가 가지고 있는 탄탄한 국력과 지명도는 험난한 역사적 소용돌이를 통과해 오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스위스의 역사적 격변기는 바로 16세기 종교개혁과 함께 찾아왔다. 신대륙과 인쇄술의 발명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 종교개혁은 스위스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다. 홀드리히 츠빙글리(Huldrych Zwingli 1484-1531)는 취리히에서 이러한 종교개혁을 관철시킨 인물로서 그리스도교적 책임 안에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 형성을 위한 결정적인 자극을 주었고,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1)</sup>

1) Hans Ulrich Jäger-Werth, *Wiederbelebung Reformierter Spiritualität*, 정미현 역, 「깨어나는 종교개혁의 영성」(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p. 16.

스위스 종교개혁의 선구자 츠빙글리에 관한 평가는 그가 살았던 16세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먼저, 츠빙글리는 진보주의자로 환영 받기도 하고, 합리주의자로 거부되기도 했다. 당시 교회와 사회질서 전반을 급진적으로 개혁하려던 재세레파와 로마교회라는 양극 사이에 위치했던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은 한편 로마교회로부터 전통을 근거로 공격 받았고, 다른 한편 급진파들로부터 성경을 근거로 공격 받았다.<sup>2)</sup> 서로 상반되는 단체들에 의한 극히 대조적인 비판과 공격은 츠빙글리에 대한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였다. 둘째, “그는 전쟁터에서 죽어 간 영웅적인 스위스 애국자로 묘사되기도 하고, 칼을 들어 그 칼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가로 변질된 설교자로 격하되기도 하였다.”<sup>3)</sup> 츠빙글리에 대한 이 같은 이미지는 취리히의 물교회(Wasserkirche) 옆에 서 있는 그의 동상에 잘 나타나 있다. 한 손에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 그는 전쟁터에서 47세의 아쉽게도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다. 셋째, 츠빙글리에 대한 보다 대중적인 이미지는 위키백과가 묘사하는 바와 같이 용병제도와 숙박업 반대 등의 직설적인 개혁가로서의 모습이다.<sup>4)</sup> 실제로 그의 개혁은 취리히 시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그가 대답해야만 하는 도전들에 직면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스테펜은 그의 사상을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가 직면한 사건들과 사람들에 대한 응답이라 정의하고 있다.<sup>5)</sup> 이런 이유로 츠빙글리는 애국자, 민족주의자적 색채가 짙은 사회개혁가로 알려지게 되었다.

츠빙글리와 동시대 인물인 마르틴 루터는 그를 급진주의적으로 종교개혁을 외친 토마스 뮌처(Thomas Münzer)나 안드레아스 칼슈타트(Andreas Karlstadt)와 동일하게 여겼다. 게블러<sup>6)</sup>에 의하면 루터는 츠빙글리를 자신의 제자라고 여

기고 있었고, 제2차 카펠 전투에서 츠빙글리의 전사 소식을 접했을 때, ‘폭력적 수단으로 종교개혁을 성취하려는 그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츠빙글리에 대한 이미지는 17~18세기를 거치면서 새롭게 형성되었다. 17~18세기의 정통주의자들은 츠빙글리를 순수한 성서적 가르침을 재확립하고, 모든 미신적인 것들을 제거하여 진정한 기독교를 바로 세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그의 신학을 지나치게 철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간주하고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다.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18세기의 스위스에서는 츠빙글리의 저작들을 수집하고, 그의 전기들을 출판하는 등 츠빙글리를 대중적으로 알리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그는 고상한 연방인으로 찬양 받았으며, 이것은 그의 정치적 활동들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낳았다. 하지만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츠빙글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톨릭은 물론이요, 스위스에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1950년에 이르러서 폴레(J. V. Pollet)가 대백과사전에 기고한 균형 잡힌 논문 “츠빙글리주의”를 통해 츠빙글리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프리츠 블랑케(Fritz Blanke)는 그의 신학의 성서적 성격을 더욱 강조하였고, 로허(Gottfride W. Locher) 역시 동일한 노선을 따랐다.<sup>7)</sup>

이처럼 츠빙글리의 상(想)은 각 시대와 학자에 따라 어느 한 면만이 강조되는 주관적인 연구만이 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상이한 평가는 츠빙글리가 실제로 어떤 인물이었는지 혹은 어떤 신학을 펼쳤는지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만 나타내 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츠빙글리를 어떤 인물로 이해해야 하는가? 츠빙글리는 급진적인 사회개혁가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선 진정한 종교개혁자였는가?

본 논고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츠빙글리의 대표 저서 「67개 조항에 대한 해설과 논증」(*Auslegung und Begründung der Thesen oder Artikel 1523*)을 중심으로 츠빙글리의 정체성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츠빙글리는 제1차

2)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박경수 역, 「스위스 종교개혁」(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p. 86.

3) W. P. Stephens, *Zwingli: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박경수 역, 「츠빙글리의 생애와 사상」(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p. 25.

4) <http://ko.wikipedia.org/wiki/>, 2011년 10월 29일.

5) 스테펜, 「츠빙글리의 생애와 사상」, p. 29.

6) Ulrich Gäbler, *Huldrych Zwingli; Eine Einführung in sein Leben und sein Werk* (München: Verlag C. H. Beck, 1983), p. 42.

7) 위의 책, p. 143.

취리히 논쟁(1523년 1월)에 대비해 취리히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논제를 정리하였다. 그것이 「67개 조항 혹은 마지막 연설」(*Schlussreden 1523*)이다. 이 글의 주제들은 당시 취리히 시를 논쟁으로 휩싸이게 했던 뜨거운 감자였다. 그는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동시에 반대자들을 반박해야 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반대자들의 교리, 신학은 물론 사회생활상까지도 날이 신랄하게 비판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반대자들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인해 자신의 신학을 더욱 심화시킨 「67개 조항에 대한 해설과 논증」을 저술하였다.

그렇다면 왜 츠빙글리의 많은 글 가운데서 「67개 조항에 대한 해설과 논증」을 중점적으로 다루려는가? 츠빙글리를 연구한 여러 신학자들은 「67개 조항에 대한 해설과 논증」을 그의 신학을 잘 드러내 주는 대표적인 저서로 평가하고 있다.<sup>8)</sup> 특별히 스위스의 츠빙글리 학회(Zwingliverein)<sup>9)</sup>에서는 1995년 츠빙글리의 주요 저서들을 현대 독일어로 번역하여 16세기 저작들을 손쉽게 읽도록 하였는데, 그중에 한 권이 바로 이 책이다. 이처럼 「67개 조항에 대한 해설과 논증」은 츠빙글리 신학 연구의 중심에 위치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만은 거의 소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논고는 츠빙글리의 신학을 대표하는 저서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진정한 츠빙글리의 상(想)을 그려 보고자 한다.

8) 필립 샤프는 「67개 조항」을 “개혁과 축에서 나온 최초의 공식 문건”이라 평하였다. 그는 이 조항들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보다 더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호평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이 문서는 다른 신앙 고백문들에 의해 대체되어 그 빛을 발하지 못하였다고 기록한다. 필립 샤프, 「스위스 종교개혁」, p. 67. 또한 토마스 브룬슈바일러는 「67개 조항에 대한 해설과 논증」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츠빙글리의 광범위한 출판물이다. …… 이미 논제의 해설에서 츠빙글리의 독립적인, 신학적인 사고가 완전히 형성되었다. 논제의 해설은 첫 번째 독일어로 된 개신교 교의학(Dogmatik)이라고 여겨진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신학적 논제의 완전성을 볼 수 없지만, 이 저서는 실제로 의미적인 측면에서 교의학으로 간주되고 있다. 오늘날 독자들은 츠빙글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다양하게 성서를 인용하고 있는지 눈여겨 볼 수 있다.” Huldrych Zwingli, *Schriften II*, (Zurich: Theologischer Verlag Zurich, 1995), pp. 8-9.

9) 츠빙글리 학회(Zwingliverein)는 1897년에 창설되었고, *Zwingliana*라는 잡지를 출간하여 매년 츠빙글리의 신학과 사상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http://www.zwingliverein.ch/>, 2011년 10월 29일.

## 2. 제1차 취리히 논쟁-「67개 조항에 대한 해설과 논증」의 탄생

### 1) 제1차 취리히 논쟁의 발단

1522년, 취리히는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봄부터 가을까지 금식규정, 성인, 그리고 마리아 숭배, 수도원 규칙의 정립과 사제의 혼인에 관련된 것들이 논쟁의 화두로 떠올랐다. 게다가 1522년 출판업자 크리스토프 프로샤우어(Christoph Froschauer)의 집에서 벌어진 소시지 사건<sup>10)</sup>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논쟁은 더욱 극에 달했다.<sup>11)</sup> 추수를 하는 가을에는 농민들이 수확량의 1/10을 세금으로 바치는 소출세를 거부하였고, 또한 몇몇 사람들은 금식규례를 반대하였다. 외텐바흐에 있는 도미니칸 수도원에서는 취리히의 개혁운동에 대해 의견이 둘로 나뉘어 대립되었다. 그러다 취리히의 개혁운동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 수도원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이러한 분열의 여파로 취리히에도 개혁운동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갈라졌고, 결국 12월 초에는 시의회도 둘로 나뉘어졌다.<sup>12)</sup>

취리히는 개혁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점점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스위스 연방대표자회의는 모든 연방공동체에게 개혁운동을 금지시켰고, 바젤과 취리히에서 출판되는 책을 검열하라고 촉구하였다. 취리히 시의회는 한편 사회 공공질서를 바로잡아야 했고, 다른 한편 스위스 연방대표자회의가 요구하는 대로 스위스의 평화도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sup>13)</sup>

10) 로마 가톨릭에는 사순절, 즉 부활절 전 40일 기간을 사육제(謝肉祭)로 지키며 고기를 먹지 않는 신앙규례가 있었다. 소시지 사건이란 1522년 사순절 첫 주일인 3월 9일 저녁에 츠빙글리를 포함한 12명의 사람들이 취리히의 출판업자 프로샤우어(Christopher Froschauer)의 집에 모여서 의도적으로 소시지를 먹은 사건을 말한다. 그러나 츠빙글리는 그 자리에서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다. 이형기 외 3인,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p. 189.

11) Zwingli, *Schriften II*, p. 3.

12) 이형기 외 3인,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p. 195.

13) 위의 책, p. 196.

## 2) 제1차 취리히 논쟁의 진행 과정

1523년 1월 3일, 취리히 시의회는 취리히의 성직자들에게 통지문을 보냈다. 1월 29일 시청에서 열리는 성직자들 사이에 있는 의견 분열을 조정하기 위한 토론회에 초청하는 내용이었다. 분열된 성직자들은 자신들만이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했다고 생각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선포를 이단이요, 미혹하게 하는 사실이라고 공격하였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의회는 토론의 근거를 성서로만 지정<sup>14)</sup>하였고, 토론 역시 이해하기 쉽게 그 지역의 언어인 독일어로 진행하게 하였다. 이 토론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회가 학자들과 상의하여 두 그룹 중 어느 그룹이 말씀선포를 계속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었다.<sup>15)</sup>

이렇게 해서 취리히에서 열린 첫 번째 논쟁은 1523년 1월 29일 목요일 시청에서 독일어로 이루어졌다. 이 논쟁에 취리히의 모든 성직자들과 대소의회 의원들을 포함해서 약 600명가량이 모였다. 장크트갈렌에서는 바디안이, 베른에서는 세바스찬 마이어가, 샤프하우젠에서는 세바스찬 호프마이스터가 대표로 참석하였다. 콘스탄츠 주교는 자신의 사절로 요한 파버(Johannes Faber) 박사를 보내었다.<sup>16)</sup> 안타깝게도 시의회가 회의진행을 기록할 서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록문서가 없다. 이런 까닭에 토론회의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sup>17)</sup> 각각의 보고서는 토론회의 과정을 매우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

스테펜에 따르면 이 토론회에 참여한 사람들 앞에는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 성서가 놓여져 있었다. 이는 성서가 모든 설교와 가르침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sup>18)</sup> 왜냐하면 취리히 시의회가 성서 외에 다른 어떤

근거도 허용하지 않음을 미리 밝혔기 때문이었다. 당시 취리히 시장이었던 막스 로이스트(Marx Röist)가 개회를 선포하고, 연이어 콘스탄츠 주교의 사절단인 야콥 폰 안빌(Jakob von Anwil)은 사절단이 거기 오게 된 이유를 밝혔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성서의 권위’가 논쟁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어느 누구도 츠빙글리의 설교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 못했고, 그가 이단이라고 입증해 내지 못했다.

오전에는 성서원칙주의와 사제의 혼인문제, 그리고 성자송배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sup>19)</sup> 점심시간이 되자 취리히 시의회는 이미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츠빙글리는 마지막으로 라틴어 성경이나 아니면 독일어 성경을 읽어 볼 것을 요청하였다. 마침내 시의회는 츠빙글리가 “자신보다 나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기 전까지는 종전처럼 복음을 선포하고 올바른 성서를 가르쳐야 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sup>20)</sup>

## 3) 제1차 취리히 논쟁의 결과와 「67개 조항에 대한 해설과 논증」의 탄생

이러한 시의회 결정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목회자들은 정식으로 결혼을 하였고, 외텐바흐의 수녀원은 텅 비었다. 세례는 귀신을 쫓는 의식 없이 자국어로 거행되었으며, 미사와 성상송배는 무시되고 혐오되었다.”<sup>21)</sup>

첫 번째로 개최된 취리히 토론회는 다분히 츠빙글리에게 우호적인 것이었으며, 논쟁을 통하여 츠빙글리는 이단이라는 비난을 모면하게 되었다.<sup>22)</sup> 또한 츠빙글리의 개혁을 지지해 준 이 토론회는 “취리히의 개신교회가, 즉 이 도시국가에 중세 가톨릭교회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국가교회가 시작되는 첫 모임”<sup>23)</sup>이 되었다.

14) 위의 책, p. 197.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시키려고 어떠한 교부나, 공의회나, 교황의 교서나, 스킴라 신학자나 심지어 교회관습도 인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15) Gäbler, *Huldrych Zwingli*, p. 62.

16) 필립 샤프, 「스위스 종교개혁」, p. 70.

17) 이 토론에 참석한 에르하르트 헤겐발트(Erhard Hegenwald)가 요약한 보고서를 출간했다. 이 보고서를 비판하면서 주교의 대변인 요한 파버가 다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렇게 되자 계속해서 반박서들이 이어졌다. Martin Haas, *Huldrych Zwingli*(Zürich: Zwingli Verlag, 1969), p. 117.

18) 스테펜, 「츠빙글리의 생애와 사상」, pp. 216-217.

19) Haas, *Huldrych Zwingli*, p. 118.

20) 위의 책, p. 119.

21) 필립 샤프, 「스위스 종교개혁」, p. 71.

22) Gäbler, *Huldrych Zwingli*, p. 66.

23) 이형기 외 3인,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p. 198.

이 토론회를 대비하여 츠빙글리는 「67개 조항 혹은 마지막 연설」(*Schlussreden* 1523)이란 제목으로 글을 썼다. 이는 그가 그동안 선포했던 설교들을 내용별로 정리한 것으로 신앙에 관한 해명서였다.<sup>24)</sup> 그러나 주교들의 대표단은 츠빙글리의 논제들이 그리스도 복음과 사도들의 교리에 근거하지 않아서 더 이상 진리에 맞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츠빙글리는 성서를 근거로 하는 67개 조항을 해설하는 글을 긴급하게 작성해야만 했다. 츠빙글리는 1523년 2월 19일 그의 친구 베르너 슈타이너(Werner Steiner)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논제해설을 쓰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그는 이 글을 독일어로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sup>25)</sup> 츠빙글리는 토론회를 마친 그 해 7월에 「67개 조항에 대한 해설과 논증」을 세상에 내놓으며 자신의 신학을 심화시켰다.

### 3. 진정한 개혁가로서 츠빙글리 : 「67개 조항에 대한 해설과 논증」의 분석

지금까지 「67개 조항에 대한 해설과 논증」이 어떻게 쓰이게 되었으며, 그 저술 배경이 되는 ‘제1차 취리히 논쟁’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67개 조항에 대한 해설과 논증」을 내용과 형식에 따라 분석하고, 개괄하고자 한다. 내용적 분석에서는 칼 바르트가 강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구조를 파악하고,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형식적 분석에서는 「67개 조항에 대한 해설과 논증」을 각 조항별로 할애한 분량을 조사해 츠빙글리가 어느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의 문체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 1) 내용적 분석

칼 바르트는 1905~1906년 겨울학기에 교회사 세미나에서 “츠빙글리의 67개

마지막 연설문 제1차 취리히 종교회의의 1523”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그는 츠빙글리가 제1차 취리히 종교회의의 기초와 출발점으로써 복음과 전통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67개 마지막 연설문」(*67 Schlussreden*)을 작성하였다고 설명한다.<sup>26)</sup> 칼 바르트는 「67개 조항」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전반부는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제1-16조항)이고, 후반부는 실제적이고 교회적인(제17-67조항) 부분이다.<sup>27)</sup> 그가 소개하는 각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8)</sup>

첫째 부분(제1-16조항)은 교회를 통해 어떤 확증도 필요 없는 복음의 권위에 대한 내용이다. 제1조항은 부정문<sup>29)</sup>으로 시작되는데, 그것은 츠빙글리의 특징적인 표현이다. 그 다음 조항부터 그는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의 관점을 펼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며(3), 전 인류의 안내자요 대장이다(6). 그리스도 교회는 그를 믿는 자들로 구성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이다. 그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머리 없이 다른 구성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교회도 그리스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7-10). 인간의 교리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인간의 구원이 나온다(13-16). 지금까지 설명한 제1~16조항을 현대어로 요약한다면, 로마에서 나와서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참된 보편적 교회는 하나의 외적인 제도에 복종하는 자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삶의 안내자요, 대장으로 삼고 있는 모든 이들로 구성되는 것이다. 실제로 그의 의견은 두 가지 슬로건 “sola scriptura”(오직 말씀으로)와 “solus Christus”(오

26) Karl Barth, *Zwingli's 67 Schlussreden Auf das erste Religionsgespräch zu Zürich 1523*, Vorträge und kleinere Arbeiten 1905-190, p. 106.

27) 위의 책, p. 107. 자끄 쿠르와지에도 칼 바르트와 마찬가지로 츠빙글리의 저서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 즉, 첫 부분(제1-16조항)은 논증의 근거에 할애되었고, 둘째 부분(제17-67조항)은 천명된 원칙들을 개혁되어야 할 교회의 상황에 적용하는 데에 할애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교회의 개혁을 목적으로 준비된 명제들이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기독교 중심의 성격을 지니는 것은 분명 놀랄 일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Jaques Courvoisier, *Zwingli Théologien Réformc*, 이수영 역, 「개혁신학자 츠빙글리」(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p. 50.

28) 위의 책, pp. 108-111.

29) 제1조항 교회의 인가 없이는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필립 샤프, 「스위스 종교개혁」, p. 67.

24) 위의 책, p. 197.

25) Zwingli, *Schriften II*, p. 6.

직 그리스도로)으로 요약<sup>30)</sup>될 수 있다.

둘째 부분(제17-67조항)은 그리스도가 참된 대제사장이시므로, 교황직(Papsttum)에서 인간의 자만심은 사라진다(17).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희생되셨으므로, 미사는 제물과 중재행위가 아니라 단지 '다시 회상'하기 위해 집행하는 것이다(18-19).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성인들의 중보기도도 개인의 선행도 필요 없다(20-22).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으므로 음식, 휴식, 성지순례, 의복에 대한 모든 계명은 비기독교적이다(24-26).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은 형제이므로, 수도회나 결혼하지 않는 성직자들을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본보기(Christenstand)로 삼아서는 안 된다(27-30). 이 세상에서 성직자들이 재산을 많이 소유하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다(23). 특별히 만일 그가 불법적인 것을 징수하여 재산을 모았다고 한다면(33). 파문을 판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되어야만 한다(31-32). 세속적인 권력은 독자적으로 세속적인 정부에 속한다. 이것은 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 권세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복종해야만 한다(34-43). 하나님 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사하신다. 그러므로 죄사함은 외적인 면죄행위 혹은 금전적인 것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50-56). 성경에서 연옥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다. 죽음 후의 것에 대하여는 하나님만이 아신다(57-60). 본질적으로 성직자의 직무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에 있다(61-63). 마지막 4개의 조항은 단번의 정언적인 '악습 폐기'에 대한 요청이다.

「67개 조항에 대한 해설과 논증」에서 츠빙글리는 일관적으로 모든 인간적인 가르침에 반대해 성서의 권위를 세우고 있다. 여기서 인간적인 가르침이란 로마 가톨릭교회의 전통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의 권위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다. 즉, 성서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추구하고 피조물인 사람을 통한 구원 추구 등의 명백한 대비<sup>31)</sup>를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츠빙글리의 67개의 명제들이 오직 성경에만 근거하고, 그리스도 중

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 존재에 관심을 두고 '나를 위한 그리스도'(christus pro me)를 선포한 루터와 달리, 츠빙글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사회, 윤리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sup>32)</sup> 즉, 루터의 이신칭의론이 각 개인의 죄와 용서에 제한되어 있다면, 츠빙글리는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사회생활과 밀접하게 관련<sup>33)</sup>되어 있다.

특히 츠빙글리는 둘째 부분을 서술하면서 로마 가톨릭교회에 대한 비판을 전면적으로 가하고 있는데, 그 비판의 내용은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즉, 제 16~33조항은 교황과 미사, 성인들의 중보기도, 선행, 성직자의 재산축적, 금식규정, 축제일과 순례, 그리고 사제와 수도사의 복장과 종교적 표식, 성직자들의 혼인, 그리고 수도회와 성직자의 독신주의와 맹세, 파문, 그리고 불법적인 소유, 교회가 행사하는 세속적 권력문제를 다루고 있다.<sup>34)</sup> 이어서 제34~67조항은 정부의 과제와 정당성, 기도, 죄사함, 연옥, 사제, 악습의 폐지 등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 2) 형식적 분석

「67개 조항의 해설과 논증」에서 츠빙글리는 '너'(du) 혹은 '너희들'(ihr)을 등장시켜 그들과 질문하고 답하는 문답형식으로 저술한다. 이는 구두 토론을 연상하게 하는데, 반대자들인 교황주의자들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반론들을 직접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형식이다. 이러한 문학적 양식은 「67개 조항에 대한 해설과 논증」의 저술 목적과 과정이 제1차 취리히 논쟁을 위한 것이었음을 반영한다.

이 글에서 츠빙글리는 복음의 핵심을 일반적으로 정의한 후, 구체적이고 자세한 교회의 교리들 혹은 관습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 두 부분은 분량상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츠빙글리는 어느 부분에 지면을 더 할애하고 있는가? 또한

30) Zwingli, *Schriften II*, p. 4.

31) 스테펜, 「스위스 종교개혁」, p. 49.

32) Gäbler, *Huldrych Zwingli*, p. 64.

33) Zwingli, *Schriften II*, p. 4.

34) 위의 책, p. 5.

그는 어느 조항을 그 분량 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가? 다음의 표에서는 67개의 조항을 내용과 그 분량별로 정리하였다.

조항	내용	분량(쪽)	조항	내용	분량(쪽)
1	복음과 교회의 관계	20-28(6)	35	세속권력	352-355(3)
2	복음의 정의	28-31(2)	36	성직자 계급의 직무	355-359(4.5)
3	유일한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	31-33(1.5)	37	세상의 상관들에게 복종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	359-368(9)
4	다른 문은 없다.	33-34(1)	38		368-371(3)
5	복음의 유일성	34-58(25)	39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세상의 법	371-381(10)
6	대장이신 그리스도	59-61(2)	40	사형선고의 권한	381-384(3)
7	머리이신 그리스도	61-62(2)	41	세상 상관들의 직무	384-391(7)
8	보편적인 교회 ecclesia catholica	63-73(11)	42	세속권력의 해임 가능성	391-394(4)
9	그리스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74(1)	43	최선의 통치권	395-396(1.5)
10		75-77(2.5)	44	기도/참된 예배자	396-397(0.5)
11	어리석은 성직자들	77-80(3)	45	위선자의 선행	397-399(2)
12	머리를 위한 미친 행동	80-82(2)	46	보상을 위한 찬송	399-402(3.5)
13	머리에 귀를 기울여라	82-83(1.5)	47	분노	403-406(3)
14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	84(0.5)	48	연약함의 극복	406-409(4)
15	복음 안에 있는 진리	84-87(3)	49	사제들의 결혼금지	410-412(2.5)
16	인간의 교리와 규범의 무익성	87-122(35)	50	죄사함	412-436(24)
17	유일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122-132(10)	51	죄사함의 권세를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은 우상 숭배이다.	436-437(1)
18	영원한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	133-145(13)	52	고해성사는 조언일 뿐이다.	437-445(8)
건진성사 146-185(40)					
19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186-196(11)	53	속죄행위는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다.	445-447(2)
20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는 필요 없다.	197-254(57.5)	54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얻는다.	447-448(1)

결론 혹은 부록 254-260(6)					
21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260-270(10)	55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 용서를	448-452(4)
22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만이 선하다.	270-281(11.5)	56	돈 때문에 죄를 사하지 말라.	453-454(2)
23	재산과 권세를 거부하신 그리스도	282-287(5.5)	57	연옥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없다.	455-474(20)
24	그리스도인들의 의무	287-289(2)	58	죽은 자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475(0.5)
25	시간과 장소를 지배하는 그리스도인	289-292(3)	59	감추어진 것을 알려고 하지 말라.	475-476(1.5)
26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위선	293-297(4.5)	60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477-478(2)
27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297-306(9)	61	사제직	479-480(2)
28	결혼할 권리	306-308(2)	62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제들	481(1)
29	결혼할 의무	308-313(5.5)	63	사제들에 대한 존경	482-484(3)
30	독신서약	314-315(2)	64	약속의 폐기	485-492(8)
서약 316-325(9)					
31	교회파문의 주관자	325-335(10.5)	65	자기 인식을 보이지 않는 자들	492-493(1)
32	교회파문의 대상	335-340(5.5)	66	영적 지도자들의 직무	494-495(1.5)
33	불법적인 재산의 해결	341-346(6)	67	이자, 십일조, 세례 받지 않은 어린이들, 견진성사에 대한 논쟁	495-497(2)
34	권력/영적인 통치권	347-352(6.5)	변호와 확인 497-499		

내용적 분석에서 이미 칼 바르트의 구분<sup>35)</sup>에 따라 「67개 조항에 대한 해설과 논증」을 제1~16조항과 제17~67조항 이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첫째 부분은

35) Karl Barth, *Zwingli's 67 Schlussreden Auf das erste Religionsgespräch zu Zürich 1523*, p. 104.

20~122쪽까지 약 100쪽의 분량을 차지하고, 둘째 부분은 122~499쪽까지 약 377쪽에 해당한다. 전체적인 구성과 분량 할애를 통하여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첫째, 복음을 정의하는 교리적인 부분이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그의 개혁이 복음과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임을 나타낸다. 둘째, 복음의 정의를 시작으로 하는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부분보다 교회와 교황주의자들을 향한 비판을 담고 있는 실천적인 부분의 분량이 더 많은 것은 그의 개혁의 관심이 보다 현실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즉, 그의 개혁이 현재 그가 봉착해 있는 현안의 문제들에 대한 응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표에서 10쪽 이상의 분량을 차지하는 조항들은 제5, 8, 16, 17, 18, 19, 20, 22, 31, 39, 50, 57조항들이다. 그중에서도 20쪽 이상의 분량을 차지하는 조항들은 제5, 16, 20, 50, 57조항들이다. 특히 위의 다섯 개 조항들 가운데서도 제20조항은 57.5쪽으로 가장 많은 지면이 할애되었다. 이 조항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증보자는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은 실제로 20조항에서만 아니라 제1조항에서 23조항까지 계속되고 있다.

20쪽 이상 분량의 조항들을 살펴보면, 복음(5)과 구원에 관한 주제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사하고(50), 구원의 사역에 어떠한 인간의 교리나 전통이 소용없음을 말한다(16), 그러므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증보자는 있을 수 없다(20),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연옥교리는 성서에 근거하지 않는 잘못된 교리이다(57). 위의 5가지 조항에서 우리는 츠빙글리 사상의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인 '오직 말씀으로'와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

### 3) 진정한 개혁가로서 츠빙글리

지금까지 1523년 7월에 쓰인 「67개 조항에 대한 해설과 논증」의 내용을 개괄하고, 형식적으로 구조를 분석하며, 그 문체를 살펴보았다. 자끄 꾸르부와의지가 지적한 대로, 그의 저서는 제1차 취리히 회의를 목적으로 준비한 명제들을 기초로 삼고 있다. 그렇기에 이 명제들은 매우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제도적 교회의 여러 가지 관행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sup>36)</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67개 조항에 대한 해설과 논증」에 나타난 츠빙글리의 신학은 두 가지 '오직 말씀으로'와 '오직 그리스도로' 요약될 수 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츠빙글리는 당시 취리히 시내에 산재해 있는 중세의 관행들과 잘못된 믿음들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그의 저서 전체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비판의 대상은 바로 로마교회와 교황주의자들이다.

먼저 츠빙글리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리를 언급한다. 그는 복음을 불완전한 것으로 여겨 교황이나 교부들의 교리로 보충해야 한다는 그릇된 견해를 비판한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 대신 교황을 머리로 삼는 교황맹신주의자들과 성서보다 교부들의 신학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을 향해 참된 복음을 제시한다. 로마교회가 보편적인 교회(ecclesia catholica)로 자처하는 것, 일종배찬, 화체설, 교황의 수위권, 교황제도, 특별권, 베드로 수위권 등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둘째, 그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종교적 관행들, 즉 선행, 공로, 성인들의 증보기도, 면죄부 판매,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 기도, 금식, 분파, 독신과 독신서약, 혼인금지, 고해성사, 연옥 등을 비판하였다. 아울러 그는 교황의 권력욕, 교황의 재산 축적, 축첩 등 교황들의 부도덕한 생활상을 폭로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들이 본을 보여야 하는 참된 사제, 성직자의 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로마교회의 신학과 종교적 관행에 대한 츠빙글리의 비판에서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그것은 바로 오직 성서를 근거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특별히 츠빙글리는 몇 가지 로마교회의 신학과 종교적 관행을 비판하면서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베드로 수위권에서 교황주의자들이 베드로를 그들의 머리로 만드는데, 성서에서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

36) 자끄 꾸르부와의, 「개혁신학자 츠빙글리」, p. 50.



다고 한 것이나, 성인들의 중보기도를 비판하면서 성인들이 저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 성서에서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한 것들이 그 예이다. 게다가 그는 “무엇보다도 성서에서 없는 표현들을 첨가하는 것에 대해 참을 수가 없다.”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면서 면죄부가 성서가 아닌 쓸데없고 어느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는 인간의 공로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교황들의 권력욕, 고해성사, 연옥에 대한 비판에서도 역시 성서적 근거가 희박하거나 성서에서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기에 로마교회의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필립 샤프의 평가대로 츠빙글리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기독교인의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규범이며, 그의 전체 신학에서 관통하여 흐르는 개신교의 객관적인 원리이다. 특히 츠빙글리는 자신의 「67개 조항에 대한 해설과 논증」에서 이를 처음으로 분명하고 강력하게 선포하였으며(1523), 자신의 신학에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부여하였다.<sup>37)</sup>

둘째, 교회의 전통 혹은 교부들의 신학 등 그 어떤 인간의 교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립 샤프에 의하면, 츠빙글리는 아인지델른에서 성경과 교부들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한층 발전시켰다.<sup>38)</sup> 그는 에라스무스의 주해들과 오리게네스, 암브로시우스, 히에로니무스, 그리고 크리소스토무스의 주석들을 읽었다. 취리히 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는 이들의 작품들을 복사해 읽으면서 그는 그 여백에 내용을 발췌해 적어 넣었다. 특별히 그는 책을 저술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를 자주 인용하고 있다.<sup>39)</sup> 츠빙글리는 에

라스무스로부터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신학을 이끌어 내었다. 그의 고전에 대한 애정은 종말론에서 잘 나타나는데,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진리와 정의를 사랑한 이교도들, 말하자면 무의식적인 기독교인들 혹은 기독교 이전의 기독교인들의 구원도 믿었다.<sup>40)</sup>

고전에 대한 애정과 교부들의 사상에 심취해 있었던 츠빙글리였지만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그는 교부들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항상 앞세웠다. 이는 츠빙글리가 논쟁 중에 주장의 근거로서 얼마나 많이 성경을 언급했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제1~67조항을 해설하면서 성경구절을 총 1,103번<sup>41)</sup>이나 비판의 근거로 인용하였다. 그 반면에 고대 철학자들, 교부들, 인문학자들의 이름은 43번<sup>42)</sup> 언급되었다. 언급 횟수를 비교하자면 대략 30배의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우리는 츠빙글리의 논제의 근거가 교부들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성경의 권위를 그 무엇보다도 교회의 전통이나 교부들의 신학보다 우위에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츠빙글리 주장의 공통된 특징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이다. 그의 비판의 핵심은 최다분량으로 할애된 제20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재자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위 영적 지도자라 불리는 교황은 그리스도 대신 교회의 머리를 자처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 주는 보이는 중재자이며, 믿는 자들에게 선행, 공로, 고해성사, 중보기도 등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츠빙글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간의 공로로 대신하는 그들의 교리에 분노한다. 그에게 있어서 로마교회는 믿음보다는 외적인 행위가 신앙에 있어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츠빙글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외적인 것들에 대한 믿음을 대비시켰는데, 그에 의하면 외적인 것들이란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상징이라기보다는 사

37) 필립 샤프, 「스위스 종교개혁」, p. 103.

38) 게블러에 의하면, 츠빙글리 서가에는 당시에 출판된 다수의 고전 작품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고전 역사가들(Herodot, Hesiod, Livius, Plinius, Thukydidies), 철학자들(Aristoteles, Plato), 수사학자들(Demosthenes), 그리고 작가들(Aesop, Aristophanes, Euripides)의 책들과 물론 이들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기초 문법서들, 사전류 등이 있었다. 츠빙글리가 점점 더 교부들과 그들의 저작들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수집했던 책들 속에 잘 반영되어 있다: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 대 바실, 크리소스톰, 씨프리아, 나지안주의 그레고리, 이레나에우스 등. Gäbler, *Huldrych Zwingli*, p. 37.

39) 필립 샤프, 「스위스 종교개혁」, p. 47.

40) 위의 책, p. 107.

41) 외경을 제외하고 정경에서만 중복된 본문도 함께 수를 세었다. Zwingli, *Schriften II*, pp. 521-533.

42) 위의 책, pp. 534-536.

람이 하는 것의 상징이라고 보았다.<sup>43)</sup>

이상과 같이 츠빙글리가 스스로 표현하는 자기 정체성은 과격하게 칼을 드는 급진적인 종교개혁자 내지는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민족의 영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 말씀에 근거해 교회를 비판하고 개혁하는 진정한 종교개혁자였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 4. 결론

츠빙글리는 급진적인 사회개혁가였는가? 진정한 종교개혁자였는가? 본 논고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서론에서 츠빙글리에 대한 오해와 다양한 평가들을 살펴보고, 그를 급진적 사회 개혁가로 오해하게 하는 요소들을 언급하였다. II장에서는 제1차 취리히 논쟁의 발단과 진행 및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그의 대표저서 「67개 조항에 대한 해설과 논증」은 그의 신학을 잘 드러냄과 동시에 이 글이 당시의 사회적이고 교회적인 논쟁에 대한 반응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밝혔다. 이어 III장에서는 본격적으로 「67개 조항에 대한 해설과 논증」을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 분석하며 그가 진술하는 그와 그의 신학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루터와 마찬가지로 로마 가톨릭교회는 츠빙글리를 ‘루터의 제자’라고 오해했다. 즉, 교황주의자들은 루터가 쓴 것과 똑같이 설교를 한다는 이유로 츠빙글리를 ‘루터적’이라고 불렀다. 츠빙글리는 이들의 오해에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내가 바울이 쓴 것과 똑같이 설교하는데, 왜 나를 바울적이라고 하지 않는가? 물론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한다. 왜 나를 그리스도적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교황주의자들의 행동은 악의에 찬 속임수와 다를 바가 없다.”<sup>44)</sup> 덧붙여 그는 루터의 이름을 듣기도 전에 이미 복음서를 설교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를 루터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부터 배웠다고 하였다. 츠빙글리에 따르면, 자신의 멘토이고, 신뢰하는 선생님이신 비엘 출신의 토마스 비텐바흐 박사(Thomas Wyttenbach von Biel)를 통해 면죄부가 거짓이고, 사기임을 루터가 쓴 면죄부를 대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한다.<sup>45)</sup>

서론에서 언급하였던 취리히의 물교회(Wasserkirche) 옆에 세워진 ‘한 손에는 성서를, 다른 한 손에는 검을 들고’ 서 있는 동상은 츠빙글리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정치운동가라는 일반적인 오해를 양산하였다. 스테펜은 이에 대하여 이 동상이 츠빙글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동시에 잘못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교회와 국가가 두 개의 분리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하나의 동일한 공동체라는 사실은 츠빙글리의 사상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동상의 츠빙글리가 목회자의 성경과 관료의 검을 동시에 가진 것으로 묘사됨으로써 그가 목회자도 관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sup>46)</sup> 실제로 츠빙글리는 비록 “전쟁터에서 검을 휘두르다 죽었지만, 검을 휘두르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 아니었다고 생각”<sup>47)</sup>했기 때문이다.

와닝거 역시 츠빙글리의 폭력성에 대한 오해를 언급한다. 그는 츠빙글리와 동시대 인물이며 같은 스위스 연방의 각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위하여 함께 활동한 종교개혁자들의 부조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츠빙글리 문의 천제 그림은 6명의 종교개혁자들을 같은 높이에 묘사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복음의 선포자들이다. ……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한 손에 성서를 들고 있다. 5명은 한 손을 펼친 자세를 하고 있다. 반면에 단지 츠빙글리는 오른손에 검을 들고 있다. 하지만 그 끝은 땅을 향하여 있다. 이것은 츠빙글리가 광신적 전쟁관이라는 비난을 접어야 한다는 뜻이다.<sup>48)</sup>

45) 위의 책, p. 173.

46) 스테펜, 「츠빙글리의 생애와 사상」, p. 195.

47) 위의 책, p. 196.

48) 첫 번째 부조에는 쿠어의 요한네스 코만더(Johannes Komander 1482-1557), 베른의 베르톨트 할러(Berthold Haller 1492-1536), 콘스탄츠의 귀족가문 출신 압프로시우스 블라우러(Blaurer von Konstanz 1492-1564)가 있고, 두 번째 부조에는 츠빙글리와

43) 스테펜, 「츠빙글리의 생애와 사상」, p. 220.

44) Zwingli, *Schriften II*, p. 174.

제2차 카펠 전쟁에서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츠빙글리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급진주의자로 오해를 받게 되었다. 1529년의 제1차 카펠 전쟁에서 평화를 위한 첫째 조건은 말씀설교의 자유였으며, 그가 추구한 동맹들도 동일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칼을 들어야만 했던 이유는 말씀설교의 자유를 위함이었다. 복음을 설교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 세력이라 할지라도 제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동맹은 칼이 말씀설교를 옹호해야 한다는 데 기꺼이 동의함을 뜻했다.<sup>49)</sup> 그의 사망 소식을 접한 마틴 부처(Martin Bucer)는 츠빙글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주님을 믿고 참된 학문을 매우 사랑하며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조국의 구원만을 바란 사람으로 묘사하였다.<sup>50)</sup> 이처럼 전쟁에서의 죽음은 말씀설교의 자유를 향한 츠빙글리의 마지막 몸부림이었고, 그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자 했던 것이다.

시대에 걸쳐 형성된 츠빙글리에 대한 오해는 대부분 주관적인 신학자들의 해석에 의해 생겨났다. 자신들의 신학적 입장을 반영하여 츠빙글리의 모습을 민족주의자로 혹은 급진주의자로 해석해 왔다. 불꽃처럼 살다 간 그의 짧은 삶은 그만큼 이용하기도, 언급하기도 좋은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츠빙글리는 과격한 사회비판 세력으로 기존 사회질서를 혁명으로 뒤엎으려다가 실패한 재세레파의 도전과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을 강조한 루터의 입장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자신만의 종교개혁을 실현해야만 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서 개인과 현실 교회는 물론이고 사회를 실제로 갱신하기 위하여 진정한 개혁가의 길을 걸어갔다.

필자는 본 논고를 시작할 때에 츠빙글리를 단순히 사회개혁가로서 간주하고 그의 책을 읽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의 저서에 나타난 사회적 비판을 살펴보는

것으로 스위스 취리히의 16세기 사회, 종교, 정치적 상황을 재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츠빙글리를 ‘단순한 사회개혁가’로 간주하기에 그는 너무도 명백한 종교개혁자였고, 그것도 언제나 종교개혁가로서의 정체성이 비대칭적으로 앞서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회를 비판하고 사회를 개혁한 것은 그가 스스로 민족의 영웅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 그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사회개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 인터넷만 열면 유명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현시대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있는 설교가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본다면, 500여 년 전 올바른 강단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 칼을 들어야만 했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 참고문헌

### 1차 자료

- Zwingli, Huldrych, *Schriften II*. Zurich: Theologischer Verlag Zurich, 1995.  
 Meyer, Carl S. ed.: *Luthers and Zwinglis Propositions for Debate: The Ninety-five Theses of 31 October 1517 and The Sixty-seven Articles of 19 January 1523*. Leiden: E. J. Brill, 1963.

### 2차 자료

#### 서양서적

- Barth, Karl, “Zwinglis 《67 Schlussreden》 Auf das erste Religionsgespräch zu Zurich 1523.” *Vortraege und kleinere Arbeiten 1905-1909*(1906), pp. 104-119.  
 ———. “Die Zurich Disputationen” *Die Theologie Zwinglis: Vorlesung Gottingen Wintersemester 1922/1923*, pp. 160-205.

바젤의 외콜람파드(Oecolampadius 1482-1531), 그리고 쌍갈렌의 바디안(Joachim von Watt 1484-1551)을 소개하고 있다. Robert, H. Oehninger, *Zwingliportal am Grossmunster in Zurich*, 정미현 역,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이야기」(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p. 83.

49) 스테펜, 「츠빙글리의 생애와 사상」, p. 60.

50) 위의 책, p. 61.

- Egli, Emil. *Schwiezerische Reformations-Geschichte*. I. Band 1519-1525. Zurich : Druck und Verlag von Zurcher & Furrer, 1910.
- Gäbler, Ulrich. *Huldrych Zwingli ; Einen Einführung in sein Leben und sein Werk*. München : Verlag C. H. Beck, 1983.
- Haas, Martin. *Huldrych Zwingli*. Zürich : Zwingli Verlag, 1969.

#### 동양서적

이형기 외 3인.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 번역서적

- Courvoisier, Jaques. *Zwingli Théologien Réformé*. 이수영 역. 「개혁신학자 츠빙글리」.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 Haas, Martin. *Huldrych Zwingli*. 정미현 역. 「홀드리히 츠빙글리」. 서울 : 한국기독교장로회 신학연구소, 1999.
- Hans Ulrich Jäger-Werth. *Wiederbelebung Reformierter Spiritualität*. 정미현 역. 「깨어나는 종교개혁의 영성」.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 Gäbler, Ulrich. *Huldrych Zwingli*. 박종숙 역. 「츠빙글리 그의 생애와 사역」. 서울 : 아가페출판사, 1993.
- Oehninger, Robert, H. *Zwingliportal am Grossmunster in Zurich*. 정미현 역.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이야기」.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 Schaff, Philip.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박경수 역. 「스위스 종교개혁」. 고양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 Stephens, W. P. *Zwingli :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박경수 역. 「츠빙글리의 생애와 사상」.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7.

# 10 존 칼빈의 경건에 대한 소고

이영식 / 총신대학교, 역사신학 Ph. D.

## 1. 시작하는 말

###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기독교 역사가 필립 샤프(Philip Schaff)는 ‘역사 속에서의 칼빈의 위치’라는 제하에서 “그는 기독교교리를 개혁주의적 체계로 조직화하여 해설한 사람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인물이었다. 그는 교부들 가운데는 어거스틴에게 뒤지지 않고 학자들 가운데서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못지않으며, 조직적이고 균형 잡힌 면에서는 두 사람보다 나은 면이 있었다.”<sup>1)</sup>라고 평가한다. 루터파 신학자들 중 제1인자 ‘독일의 교사’였던 멜란히톤은 그를 단호하게 ‘진정한 신학자’라고 칭했다. 칼빈의 신학은 성경에 대한 철저한 지식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는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가장 유능한 주석가였으며 그의 주석서들은 고대와 근대를 통틀어 최고의 수준이었다.<sup>2)</sup> 그는 주석을 포함하여 엄청난 양의 ‘기독교 지

1) 필립 샤프(Philip Schaff), 박경수 역, 「교회사 전집-8, 스위스 종교개혁」(고양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p. 248.